



‘영산강살리기 사업’ 승촌보 공사 구간 시공사가 2일 집중호우에 대비해 중장비를 동원, 공사 현장에 쌓아둔 준설토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영산강 준설토 큰물 질까 ‘조마조마’

장마 시작...오니토 유출 환경오염 우려
총 435만^m³ 준설...공사 현장 처리 비상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면서 영산강 준설토 처리에 비상이 걸렸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2일 밤부터 3일까지 국지성 집중호우가 내릴 것에 대비, 2일 오전부터 영산강 주변 적치장에 쌓아둔 준설토를 집중적으로 처리하는 등 홍수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농민과 환경단체들은 영산강 주변의 퇴적 오니토 준설토가 집중 호우로 흘러 내릴 경우 인근 강으로 스며들어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며 경계하고 있다. 특히 강이 오염되면 농경지 등에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하 익산청)은 장마에 대비해 지난 5월부터 ‘영산강살리기 사업’ 공사 구간 적치장의 준설토를 대부분 외부로 반출했으며, 2일에는 준설토가 남아 있는 지점에 대해 경사작업과 평탄작업 등을 통해 비로 인한 유실에 대처하고 있다.

익산청에 따르면 이날까지 영산강 살리기 공사 현장에서 준설된 흙의 양은 6공구 200만^m³ 등 총 435만^m³에 이른다. 현장에서 발생한 준설토는 인근 적치장에 별도 보관하거나 준설 즉시 외부 지역 6곳으로 반출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익산청은 이달 들어 장마가 본격화하자 적치장의 흙을 대부분 외부로 옮긴 상태며, 일부 준설토가 남아 있는 곳은 중장비를 동원해 흘러 내리지 않도록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이다. 따라서 비가 내리더라도 준설토로 인한 환경 오염의 가능성은 없다는 게 익산청의 입장이다.

허정무 “대표팀 떠나겠다”

연임 포기...정해성·홍명보·김학범 후임 거론

진도 출신으로 월드컵 출전 사상 처음 한국 축구를 원정 16강에 올려놓은 허정무(55) 감독이 2년6개월 동안 잡았던 대표팀 지휘봉을 내려놓는다. 허정무 감독은 2일 오전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 5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축구협회가 후임 감독 인선에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일찍 결심하게 됐다. 차기 감독 인선에서 물러나겠다. 당분간 재충전 시간을 가지면서 공부를 할 생각”이라며 대표팀 사령탑 재계약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좋은 성적을 내는 기쁨을 마련하고 싶다”고 밝혔다. 허 감독은 “축구협회가 후임 감독 인선하는데 부담을 덜어주려고 일찍 마음을 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 축구는 체력·정신·조직적인 면에서는 뒤지지 않는다. 가장 부족한 게 기술적인 부분이다. 볼 터치와 패스능력, 순간 상황 판단능력, 영리한 플레이 등은 기초부터 잘돼야 한다. 이런 면은 우리 축구인 모두가 느끼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해결될지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축구협회는 허정무 감독의 재계약 포기에 따라 이르면 7일 기술위원회를 열어 후임 사령탑 인선 작업에 들어간다.

한편 대표팀 수석코치로 허정무 감독을 보좌했던 정해성 코치와 지난해 국제축구연맹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한국의 8강 진출을 이끌었던 홍명보 올림픽대표팀 감독, 김학범 전 성남 일화 감독 등이 차기 사령탑 후보로 거론된다. 그러나 이외의 외국인 감독이 대표팀을 지휘할 가능성도 있다.

천동·번개 동반 국지성 호우

광주·전남 20mm~80mm...오후부터 그쳐

주춤했던 장마전선이 다시 발달하면서 주말과 휴일 광주·전남지역은 천동·번개를 동반한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3일 광주·전남 지역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시간당 2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린 뒤 오후부터 차차 개겠다”고 예보했다. 강수량은 20mm~80mm 이상으로 예상된다.

3일 아침 최저기온은 21도~23도, 낮 최고기온은 25도~30도의 분포를 보일 것이다. 장마전선이 계속 남하하면서 광주·전남지역은 당분간 천동·번

개를 동반한 국지성 호우가 내리겠다. 바다의 물결은 0.5m~2.0m로 비교적 낮게 일겠으나 해상에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아 선박출발 사고 등 주의가 요구된다. 휴일인 4일 광주·전남지역은 일부 내륙지방에 한두 차례 소나기가 내리겠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남해안 지방에 80mm 이상의 국지성 호우가 예상된다”며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지는 만큼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10 월드컵 국제남자 배구대회

FIVB WORLD LEAGUE KOREA 2010 GWANGJU

7.3(토) ▶ 4(일) 14:00

주최: 대한배구협회 | 후원: 광주광역시체육회